

# 2011년 유은3018산악회 합동시산제(계룡산)

simpro



## 소개글

작년부터 유은3018산악회와 3018재경산악회가 천태산부터 합동등산을 시작하더니 올해는 합동시산제에 대해 게시판이 뜨거울 정도로 토론을 벌이며 계룡산코스를 논의하다 시산제도 중요하고 산정상을 정복하는것도 중요하고, 넉넉한 뒷풀이 시간을 마련하여 광주,서울친구들의 회포푸는것도 중요하다해서 결국 계룡산 신원사쪽으로 장소를 정하고 2011년 2월 12일날 드디어 오랜숙원이었던 합동시산제 겸 등산모임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재광에서는 심인섭이 재경에서는 이상주가 찍은 사진을 토대로해서 그 기억을 영원히 가져가기 위해 글을 남기게 되었으며 이런 합동시산제를 매년 개최하고 일년에 두어번 정도는 합동산행도 같이 하기를 결의했다.. 후참에라도 이 글을 보면 그때 그 아련한 추억이 새록새록 돌아나기를 갈망하면서 계룡산 합동시산제 및 합동등산 산행기를 시작한다..

## 목차

---

- 2011년 3018재광,재경 합동시산제 및 산행(계룡산)

2011년 2월 12일 토요일

오늘은 유은3018 재광/재경산악회의 계룡산에서의 합동 시산제 및 산행하는 날인지 다들 알지라

계룡산은 충남공주시와 계룡시,논산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걸쳐있는 해발845m의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충청도의 대표적인 산으로 천황봉과 연천봉, 삼불봉을 잇는 능선이 닭의 벼슬 쓴 용을 닮았다하여 계룡산 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네.. 이 산의기슭에는 동학사, 갑사, 신원사등 유명한 계룡산3대사찰이 있으며, 교과서에 소개된 남매탐도 있고, 남쪽 지역인 신도안은 조선 왕조 개국 직전 도읍 후보지로 꼽히기도 했는디 그런것은 다들 알제잉.

각설하고,

30여년만에 처음 만내는 친구들 그리고 사진으로만 만냈던 친구들 그리고 어끄저께 봤던 친구들과의 만남에 흥분되고 설레였던지 일주일 내내 감기몸살에 복통까지, 최악의 몸상태였지만 합동시산제 치르는 날 새벽엔 거짓말처럼 싹 나아 부렸다네..

간밤에 눈발이 좀 흠날리는것이 쪼까 우려스러워 눈뜨자 마자 창밖을 내다보니 도로며 차위에 눈이 솔솔히 쌓여있었어..

계룡산지역의 기상상태가 겁나게 걱정스러웠지, 우리야 괜찮지만 여친들이 힘알탱이없이 산에 오르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계룡산지역의 기상상태를 확인했더니 하루내내 날씨 조아부렸어여.. 낮 기온도 영상 1도 정도였고,.

역시 계룡산 산신령님은 우리들의 산행을 허벌나게 반기신것 같으네.

산행지가 멀고 아침7시40분 출발인 관계로 마나님이 새벽에 인나 맛나게 지어준 뜨스밥을 든든히 먹고 도시락챙겨서

출발지인 비엔날레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7시20분이었어..

나를 반겨주는 주차장 맨앞에 서있는 로얄관광버스의 3018산악회표지판..(워따매, 징하게 반갑데이)

음마마.. 내가 첫손님이네..차에 올라 커피 한 잔 마시고 기사님이랑 싘데읍는 야그로 꽃도 피우고, 그렇게 해찰하기를 한20분정도하고 7시40분쯤되니 친구들 한, 두명씩 모여드네...그려 아침에 뜬금없이 내린 눈때문에 길이 많이 미끄러워 쪼까 시간이 지체되었을것이어..그때문에 늦게 도착하여 못간 친구도 있었을 것 인디..미처 확인이 안되부네...황정라가 가겠다고 풀새부터 야그 했는디...안보이는 것이 늦었나벼..



이렇게 산악회 회장 홍정, 이계철, 윤의요, 임춘재, 신민용, 최철, 조영민, 오치종, 이상우, 정태균, 하병호, 김종실, 이수행 그리고 나 심인섭등 머시매14명과 김명숙, 최민자, 김진, 양미화, 손옥경, 고재숙, 최장현, 선연옥, 정덕진 이렇게 가시내 9명등 총23명과 아침에 나왔다가 시산제 준비물이랑 회비까지 다 건어 임시총무 미화에게 넘겨주고 아쉬움을 우리들 가슴에 잔뜩 문대놓고 병원에가버린 산악회 총무 김영숙이 이렇게 (출석24명 산행23명)23명이 8시경 버스로 드디어 장도에 올랐어. 그시각 서울에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추위에 떨며 경덕이가 늦게오는 버스를 궁시령 궁시령 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을것이어.. 서개석, 이상주, 윤경덕, 변재인, 장동일, 이기호, 이상혁, 김광호, 김종석, 김진수, 강승우 등 머시매 11명과 김성남, 김막례, 박효금, 이옥희, 김이리나등 가시내 5명 그리고 대전에서 합류한 안현아등 17명..모두 40명이 계룡산으로 향했지...모두들 친구들 만난다는 들뜬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지..남새스럽게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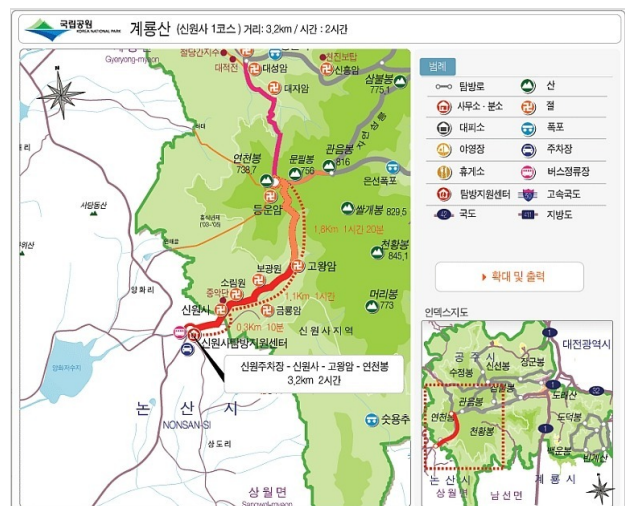
드디어 계룡산 신원사 주차장에 도착해본네..재경친구들이 먼저와 기다리고 있었지(와따매, 친구들아 무자게 반갑다야..잘들 있었지야 워매 흰머리도 많이 늘어부렸고야 뱃살도 허벌나게 나와부렀다이



재광신민용과 재경강승우의 어깨동무..(오매, 이친구들은 얼마만에 만났을까이. 서울 잠깐 땡겨온다더니 이제서야 만나부렀네이..30년만인가 친구야...)



재광산악회 회장인 홍정의 오늘 산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갈쳐주고 있느니 모다들 톨망톨망한 눈으로 열심히 듣고있네이..오후4시부터 뒷풀이할랑개 늦지않게끔 내려오드라고이



오늘 등산코스드..최단거리인 만큼 깔끄막도 겁나 높겠제이..가다보면 깔딱고개가 몇군데 나온다는디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들가세이..





신원사 오층석탑과 중악단(계룡산신에게 제사지내기위해 고종 16년에 묘향상의 상악단,지리산의 하악단에 이어 계룡산에 중악단을 추가하여 설치해서 산신에게 제사지냈다가데..)



신원사쪽엔 이렇게 등산인들이 별도로 산신제를 지낼 수 있게끔 중악단과 별도로 산신제단이 준비되어 있었어.(돼지머리와 고사떡은 재경친구들이 준비해 왔구먼..예까지 이고 지고 오느라 수고..)



졸업30주년기념 상임집행위원장이자 재광동창회 회장인 김종실 친구가 산신령께 술 한 잔 올리고(고천문은 이수행친구가 직접 써서 올렸다네..)



산신제 지내고 계룡산등산하기전에 단체사진 한장 찍고 가세.. (재광23명 재경17명등 모두 40명이 계룡산 신원사 산신제단에서)





재경사무총장 김종석과 재광사무총장 신민웅의 계룡산소림원 돌탑에서의 결의(그려 두친구의 수고가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보장해부네)



이제0.6km왔네이.여기서 고왕암을 거쳐 연천봉고개까지는 2.1km (왼쪽 보광암방향은 후참에 관음봉거쳐 연천봉까지 등정한 후 하산한 3전사의 하산코스라네)



고왕암가기전 산죽터널에 들어선 재경이옥희와 김이리나.. (여기까지는 어찌쿠름 헤쳐하면서 왔는갑는다..그래도 간만의 등산이라 보대껴하는 친구들이 생겨나드라고)



고왕암 : 이성계가 도읍지를 정할려고 계룡산에 들렀다가 머물렀던 절이라는데..그 옆불쪽으로 산죽터널이 볼만 하데이





도치샘 못가서 다리가 풀린 재경김성남친구를 위해서 너럭바위  
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있는 재광최민자와 신민용  
(먼저간 친구들은 도치샘에서 기다리고 있겠제이)



여기는 재광친구들(양미화,고재숙,김명숙,손옥경,최철,선연옥,  
(음마, 여친들 사이에 혼자서 품잡고 서있어부네 이))

도치샘에서 재경친구들.(좌로부터 김막례,서개석,장동일,변재인  
김광호,박효금,강승우,이상혁...모다들 징하게 반갑네이...그 환한  
웃음..잊지말세이)



재경 김종석,박효금,이옥희.김이리나,김막례 앞줄에 이기호  
(근디 서울여친들중 김성남과 안현아는 어디로 가부렀다나)



재광 조영민,김종실,최철(그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들했어이  
앞으로 시작되는 깔딱고개에서 영민이와 철이는 수고들 좀 해주  
드라고이..영민이는 민자배낭을, 철이는 성남이 배낭을 매고이)



이제부턴 좀 쉬어서 찍드라고이 재광 심인섭,신민용 재경 김진수  
(진수야 작년11월에 장성백암산까지 상주랑 완중이랑 같이 와서  
산행한것이 엇그저께 같다야..)



뒷줄부터 이옥희,김막례,이수행,김진수,이상주,윤경덕,박효금



자..여기도 숨도 안쉬고 외워볼세이(뒷줄. 이수행,이상주,김종석,



변재인,김이리나 앞줄 김종석,이기호..(이젠 친구들 이름 부르는 데 막힘이 없어부네)



자..다들 뒤떨어진 친구들 챙기고 사진도 찍고 했으면 연천봉고개를 향해 싸개싸개들 올라가보드라고이...배고파 죽겠어..벌써12시 30분이 넘었당께..

최철,이상우,최민자,변재안,조영민,양미화,안현아,임춘재,앞줄은 김진,김진수,홍정..)



오~나의 사랑 성남이 배낭 ㅎㅎ(연천봉고개를 오르면서 다리 풀린 김성남의 배낭을 뽐강 짊어 맨 최철..두사람의 행복한 미소 민자의 가방을 짊어 맨 영민이 사진이 없는 것이 쏘까.미안혀이



여그가 연천봉고개여..2.7km올라왔구먼,,얼른 밥먹세..배고파죽겠네이..싸개싸개 자리를 잡고 몽그리고 앉아 보드랑께..



모다들 방방하게 쌓아온 도시락들 펴놓고 사이좋게 나눠들 먹세..(저쪽 뒤로는 친구들의 모습이 안보여야..40명이 올라왔을개 안보일만도 하네이)





연천봉고개에서 점심먹고 많은 친구들이 신원사로 토껴부렸고 관음봉을 향해 올라가던중 부지런한 고재숙과 정덕진은 벌써 관음봉찍고 하산중이었어..(오매 그란디 덕진이는 머가 급하다고 먼저 내려가부렸을까이)



동학사방향을 뒤로 한채 김막례와최철(재작년에 동학사-은선폭포-관음봉-삼불봉-삼불봉고개-남매탐-동학사로 이어지는 코스를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 거그에 비하면 오늘 코스는 양반이여..)



관음봉정상에서 좌로부터 이상주,강승우,김막례,이수행,서개석 김광호,변재인,이상혁,장동일,앞줄은 윤경덕,최철(음매 멋져부러. 김막례,고재숙,정덕진 여친3명에서 관음봉 등정했어야..)



관음봉에서 장동일,윤경덕,변재인,김막례,강승우,이상혁,이수행 (여그서 계룡8경은 천황봉일출,삼불봉설경,연천봉낙조,관음봉한운,동학계곡신록,갑사단풍,은선폭포운무,남매탐명월이라네)



드려 관음봉정상에 서다..(장동일,최철,이수행,윤경덕,김막례,강승우,심인섭,이상혁,서개석)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네..하마트면 뒤로 떨어질뻔 했는디..뒤는 바로 낭떨어지여..



관음봉등정후 친구들은 신원사로 하산하였고 아이젠차고 올라야 하는 연천봉을 경덕이 철이 그리고 인섭이 이렇게3명이 올랐지..뒤에는 천황봉(공개는 안되어 오를 수 없다네)





인접이를 중심으로 좌측은 삼불봉, 우측은 관음봉이며..연천봉까지 별로 멀지 않지만 빙판길이 언덕으로 이어져 아이젠없이 등산하기가 쏘까 어려워 대다수 친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못올랐지.



연천봉바로 아래에 있는 등운암..하산할때 이곳의 보살님들과 같이 하산하였는데 꼭 구름위를 걷는 것 처럼 내려가데야..난 죽는줄 알았는디..워낙이 깔끄막이 급경사랑개..



극락교앞에서 풀새잡은 이상주(그 뒤엔 작은 폭포가 하나 있는데 예까지 우렁우렁 소리가 들리는것 같으니..)



연천봉등정후 등운암을 거쳐 하산하는데 풀새내려가 보광암에 머물던 친구들과 합류하였지..(얼른들 가세..친구들 기다리네이)



오후4시까지 집결하라하여 해찰하며 땀겨왔더니 이렇게 풀새 오리탕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광주서 가져온 쌀먹걸리 다 먹어부렸는가?)



뒷풀이1조여..좌측부터 최철,신민용,변재인,이상우,하병호,이계철 우측은 김막례,김성남,이옥희,선연옥,정덕진(그려..찍사가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면 모다들 쳐다보고 웃는것이 좋아부러이)





여기 2조는 FTA회담중이네..(좌측부터 윤의요,정태균,김진,김종석  
이기호,강승우 우측은 오치중,김광호,이수행,김진수,김이리나,박효  
금) 웃는친구들 술 한잔씩 더 마셔잉..



여긴 부지런히 고기 뒤적이세..(좌측은 홍정,고재숙,안현아,김명숙  
이상혁,임춘재 우측은 김종실,조영민,최민자,양미화,손옥경,최장현  
대전서 온 안현아친구야...정말 반갑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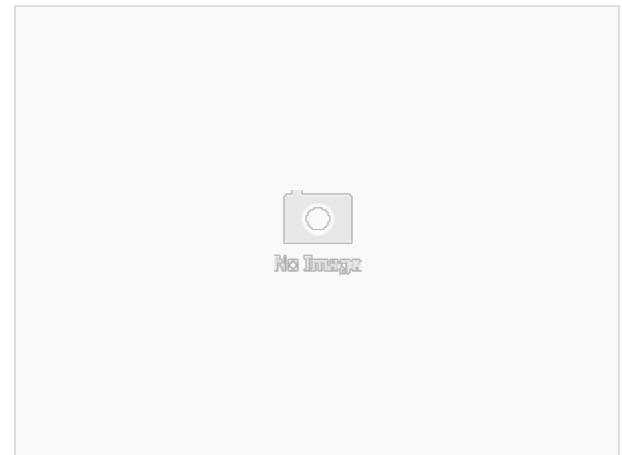
여긴 VIP석이네.. ㅎㅎ 좀 늦게왔다고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놨어이  
(이상주,윤경덕,서개석,장동일 그리고 내자리여..)



성남이와 의요는 먼 이야기가 그리도 재밌게 할까이..  
모다들 막걸리,동동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이야기꽃이 만발이네



그러..난 이런 웃는 모습이 정말좋아..사진발도 잘 받잖아잉.  
하병호와 고재숙..



까..윙크날리다 딱 걸렸어이...근디 너무 미소가 화사해서리 칼라  
가 부담되네이..그래서 흑백으로 살짝 눌러부렀네잉..김진





얼매나 보기 좋아..이상주와 최철의 러브샷...그려 재경산악회와  
재광산악회의 우정을 제대로 보여준다..



뒷풀이 끝난 후 헤어짐이 아쉬웠으나 그래도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이여..(서로 손 붙잡고 가지마~못가~ 그려 안갈라네 친구야)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안에서 ㅎㅎ(버스오디오가 고장나부러 스마  
트폰으로 가사보면서 생음악으로 소리질러부러~~윤경덕과 장동일  
생음악의 허전함을 서울도착하여 노래방에서 2시간이나 풀었다네  
체력들 좋긴 좋아이)



광주도 뒤질수 없다..(광주로 내려오는 버스는 최첨단음향장치에  
현란한 조명발받으며 광란의 호남선을 노래불렀다...김종실.최민자  
최장현..)

아침7시40분에 광주비엔날레 주차장에 집결하여 12시간의 긴 여행끝에 밤7시40분 다시 광주로 돌아와부렀  
네이

모다들 겁나피곤하고 지쳤겠지만 얼굴들을 붓게 전혀 그런 때깔이 안보이는 것이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과

같이한 산행의 기쁨 때문이지 않겠는가?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서울로 간 친구들도 모다들 잘 들어갔을거  
라 생각되네이

후참에도 3018합동시산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고 꼭 산악회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산  
을 좋아하고 친구를

그리워 하는 3018동창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산악회 산행 공지가 뜨면 참석들 하세나..

거기서 서로 얼굴보고 재앙시롭게 이름부르면서 산에 오르다 보면 깨댕이 벗고 먹감던 까불태기시절이

그립지 않겠는가....





## 2011년 유은3018산악회 합동시산제(계룡산)

**블로그**

simpro(운명이다)의 반백년 이야기

<http://blog.daum.net/huhasim>

**저자**

simpro

**발행일**

2011.03.02 13:01:02

 **블로그**